

#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 연구

남민우\*

## 〈차 례〉

- I. 홀대받는 과목과 줄어드는 상상력 :  
국어교육사와 역사적 상상력
- II.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특수성 :  
조선어학회의 좌우합작 노선
- III. 미군정기 국어교육의 장르 선택논리와 문학교육관 :  
鑛魂의 문화적 논리
- IV.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독자적 노선의 의미

## I. 홀대받는 과목과 줄어드는 상상력 :

### 국어교육사와 역사적 상상력

이 글은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및 초중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체계화를 위해서는 국어교육사 연구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한다. T.S. 쿤이 주장하였듯이, 과학 '혁명'을 일화나 연대기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寶庫로 본다면 그 역사는 현재 우리가 가진 科學像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다(Kuhn, T.S. 1970:1). 자연과학적 실천이 이처럼 자기 역사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면 인문사회과학적 실천인 국어교육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국어교육계는 점차 자신의 역사가 寶庫임을 잊어가는 듯하다.<sup>1)</sup>

\*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이런 무관심의 현상은 사대·교대의 교육과정 그리고 임용고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과목으로서의 '국어교육사'를 학부 과정에서 개설한 대학이 드물며 시험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더욱 없다. 국어교육사는 국어교육학개론서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대개는 문서로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천사가 대중을 이룬다. 실정이 이와 같기에, '서구의' 문학이론 變遷史나 '국문학의' 양대 영역인 國語史와 文學史 관련 내용은, 국어교육학의 '독자성'을 위협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교육 연구자나 현장교사들은 대학입시 제도에 의해 중등교육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학마저 그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잠잠한 분위기의 대학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국어교육학 관련 지식이나 이론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어떠한 역사적 감각을 지니게 될까? 혹은 교육과정 중심의 연대기적 지식에 간힘으로써 보고(寶庫)로서의 역사를 화석화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관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국어교육사의 연구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군정기(45.9.12-48.8)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역사적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교육사에서 이 시기는 교수요목기(1945-55)로 통칭하여 서술하는 경향<sup>2)</sup>(최현섭 외, 2002, 제3부)이 있으나, 단독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는 국어교육계의 주도세력의 성격 변화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격 변화를 면밀히 살

- 
- 1) 물론 국어교육사 연구물이나 과목 개설이 적지 않음은 사실이다. 특히 2002년 이후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의 '근현대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가 수행되면서 많은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어교육사 과목이 독립적인 과목으로 널리 개설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구 성과는 사장될 위험성이 있다.
  - 2) 이처럼 국어교육연구에서의 약술 태도와 달리 교육계에서는 교육활동의 긴급조치기(45.8.15-46.9), 교수요목 제정·적용기(46.9-48.8), 교수요목계승기(48.8-50.6), 전 시하 교수요목 변환 적용기(50.6-54.4)로 세분한다(정태범, 2000: 59-62). 물론, 박봉배(1987)에서는 미군정기를 독립적으로 다루지만 이러한 형태는 말 그대로 '썰'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박봉배의 연구는 대체로 실증주의적 관점에 머물고 있다.

필 때, 단독정부 수립 이후 국어교육계의 쟁점이 되어버린 문제, 즉 좌익계 작가나 인물이 쓴 텍스트의 교과서 수록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견해<sup>3)</sup>도 재규정될 수 있다. 말하자면, 단독정부 수립 이후 확대된 좌우대립의 구도에서, 그러한 대결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미군정 시기를 逆投射하는 방식, 또는 그 시기의 국어교육계의 특수성을 주목하지 못한 채 국어교육계 외부의 논리로 사태를 규정하는 관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국어교육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확보는 국어교육의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어 마땅하다.

## II.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특수성 :

### 조선어학회의 좌우합작 노선

교수요목기(1945-1955)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근대적 민주주의 민족교육의 재건과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험 및 모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기로 규정된다.(이광호, 1985) 교수요목기 중 특히 미군정기는 상대적으로 더욱 실험적인 시기였기에 현재의 교육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초월하는 데 있어서도 시사점을 준다고 여겨진다. 국어교육계 역시 동일한 상황맥락 속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 시기 국어교육계의 논의가 지니는 의미는 심대하다. 다양한 실험과 모색이 필연적으로 야기했던 혼란을 조망하기 위해 먼저, 당시 국어교육계의 주도 세력과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이 적절하게 이해될 때, 『중등국어교본』과 관련한 세부적인 쟁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계 일반은 국어교육계와 달리 해방 직후부터 좌우대립적 구조<sup>4)</sup>

3) 이 시기 국어교육계의 문제적 인물로 이병기(李秉岐)를 주목한 김윤식(1992)과 정재찬(1996) 등의 연구가 이와 관련된다.

4) 이 시기의 교육계의 주도세력 간의 관계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명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김용일, 1985). 해방직후 '남한에서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청'뿐이라는 대전제하에서, 교육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한 기구는 주지하듯, 미군정청 학무국 및 이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의였다(김용일, 1994). 이 기구들은 교육이념을 결정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그 때 좌익계의 백낙준이 제기하고 조선교육심의회 제4차분과회의(45.12.20)에서 채택된 교육이념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미 좌우대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즉,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비과학적이며 더욱이 일제가 즐겨 쓰던 八宏一宇와 비슷한 냄새를 피운다고 좌익계의 백남운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만규 등 좌익계 교육이론가들은 이 점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립은 좌익교육단체인 조선교육자협회(4.2.17)<sup>5)</sup>가 교육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더욱 첨예화된다. 실상, 당시의 유일한 합법적 기구인 미군정청 학무국의 주도세력은 '뿌리 없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다. 학무국의 고립은 미군정청 발족(45.9.12) 직후에 있었던 조선임시중등교육협회 결성식(45.9.15)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조선임시중등교육협회는 결성식 성명서에서 "일본정권이 붕괴된 이래 사회적 질서와 교육제도의 재편성 과정에 있어서 하루라도 속히 조선교육계의 총의를 대표하며 통일적인 주체기관이 자주적으로 결성되기를 요망"한다고 발표하였으며 9월 19일자로 전 중등학교 교원이 모두 사직하기를 결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대회였다. 이 대회는 일제 시대 사립중등학교 교장단 모임인 '친화회' 소속 교장들인 유억겸, 조동식 등이 준비한 것이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조동식이 임시의장 자격으로 등단하여

교육정책 지배세력(A)	교육정책 비판세력(B, C)
미군정청 학무당국 + 보수우익 정치인, 오천석 중심의 새교육운동계, 백낙준 중심의 교육문화협회	B : 조선교육연구회 (안호상 등의 우익 소수파) C : 좌익 정당, 조선교육자협회(이만규 등), 조선학술원(백남운 등)

5) 조선교육자협회의 창립과정과 활동 양상에 대해서는 김성학(2004)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조동식의 친일 경력을 문제삼은 좌익계 교원들에 의해 저지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육계의 패권은 사회주의 성향의 교원들이 쥐게 되었으며 그 후 탄생한 것이 조선교육자협회였다. 이렇게 형성된 조선교육자협회와 미군정청 간의 좌우대립 구조는 교육계의 정치화를 야기하였다.

하지만, 국어교육계는 동일한 대립적 구조 속에 놓이지 않았다. 사실이 중요하다. 국어교육계가 좌우대립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린 것은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면서이다. 그것은 당시 국어교육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조선어학회가, 자신들의 임무는 한글 보급과 국어교육에 있을 뿐 정치에는 不偏不黨하기로 결의(이용호, 1974: 207)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조선어학회는 어떠한 연유로 불편부당(좌우합작)의 입장을 취했으며, 어떠한 가치관과 관점을 지니고 국어교육계를 개혁하고자 했는지, 실제로 미군정청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비정치성이 소멸되고 국어교육계가 정치적 대립의 전장이 되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사건이 이러한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어학회는 해방 직후 긴급임시총회(45.8.25)를 열고 국어교육계가 직면한 시급한 당면과제였던 '교과서 제작 (및 교사용성) 사업'과 '사전편찬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 두 과제가 이와 연관된다.

먼저,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자. 조선어학회는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sup>6)</sup>

국어교본 편찬위원(소속)	분과별 위원
김병제(조선어학회), 김윤경(조선어학회) 박준영(한성상업학교), 방종현(조선어학회) 장지영(조선어학회), 정인승(조선어학회) 조병희(경성서부남자국민학교) 조윤제(진단학회), 주재중(계동국민학교)	교본 起草委員 1. 『초등 국어 교본』 기초위원 윤복영, 윤성용, 이호성(책임) 2. 『중등 국어 교본』 기초위원 이승년, 李泰俊, 이희승(책임)

6) 이것은 조선어학회가 교사용으로 발행한 『초등국어교본한글교수지침』(45.12.30)에 의한 것이다.

최현배(조선어학회), 양주동(진단학회) 윤복영(협성학교), 윤성용(수송국민학교) 윤재천(청량리국민학교), 이극로(조선어학회) 이세정(진명고등여학교), 이승녕(평양사범학교) 李泰俊(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이호성(서강국민학교), 이희승(조선어학회) 이은상(국문학자술가)	3. 『한글 첫걸음』 기초위원 장지영, 정인승(책임), 윤재천
	교본 심의 위원 방종현, 조병희, 주재중, 양주동, 이세정
	『초등 국어 교본』 삽화 집필 담당 이희복(경성사범학교부속국민학교) 이봉상(경성여자사범학교부속초등학교) 한글 교수 지침 담당 - 이호성

이러한 편찬위원회 구성 일시는 1945년 10월 9일로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 李泰俊이 포함되어 있는바, 게다가 그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소속이란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중등국어교본』의 起草委員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사실은 『한글』 복간호 '한글소식'(46.4)에까지 명시되지만 그 이후 覆字化되어 왔다. 정작 李秉岐는 편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면서 45년 9월 30일 전후까지 고향인 전북 礪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미군정청 학무국에 출근하기 시작한 것은 10월 30일부터였다.

그렇다면, 이태준은 어떤 연유로 조선어학회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 起草委員이 되었던 것일까?

매칠 전에 妻家에 가서 장모 祭祀를 지냈다. 어려서는 祭祀를 더러 지내봤지만, 커서는 祭祀 지내는 구경을 처음 했다. 그래서, 남의 나라 風俗이나 보듯 눈에 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中, 그 中에도 祝文이 第一 웃어왔다.

... 생각하면, 祝 읽는 그 사람만이 웃어온 꼴이 아니라, 祭를 드리는 효자 아무개도 漢學者는 아니라, 祝文의 뜻을 알 리 없으니 웃어온 꼴이오, 더구나 祭를 받는 우리 장모는 내가 알지만, 「가가 거겨」는 아시어도, 「감소고」니, 「유세차」는 모르시는 분이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누가 읽는 것인가? 이게 무슨 웃어온 꼴인가!

... 이런 喜劇은 어쩌다 祭祀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흥이 본다. 婚姻 청첩, 학교 무슨 式날 청첩 모주리 이런 꼴이다. 몇가지 내어놓고 버겨 보면 무슨 「敢奉邀幸賜」니, 「煩納甚幸肅此不備」니, 「崇祉」, 「此段御案内申上

候」나, 「尊賀冀陽光臨附頌台棋」나, 무슨 독갑이 소리인지 모르겠다.

무슨 내가 無識한 탓이다. 그러나, 나의 漢字 無識을 無識으로 탓하는 이는 도리어 엄청난 無識일까 한다.

- 이태준, 『無識』, 『한글』 제1권 4호(1932)

해방 이전까지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에 기고한 문학가는 이병기를 비롯하여 이태준, 이광수, 임화, 김기림, 홍효민, 윤곤강, 조지훈 등이었다.<sup>7)</sup> 이들 중 이태준의 글은 대단히 앞설 뿐만 아니라 유독 文字論에 관한 것이란 점, 조선어학회가 그토록 비판하던 漢字崇拜 風俗을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가 『문장강화』(1940)를 통해 言文一致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런 주장은 그다운 것이지 놀라운 것도 아니다. 다만, 冊은 ‘책’보다 ‘冊’으로 쓰는 것이 아름다워 冊으로 쓰고 싶다고 한 스타일리스트(「冊」)라거나 古典과 傳統의 생활화를 주장한 擬古主義者(「古斷品과 生活」) 등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그의 漢字崇拜 諷刺論을 보지 못할 때, 조선어학회와 이태준 간의 언어관의 유사성은 가려질 뿐이다. 물론 이태준이 순한글 전용론자는 아니었다. 『문장강화』에서는 ‘김두봉의 말본’을 가리켜 “무슨 암호로 쓴 것 같이 보통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자 개인의 전용어”에 해당한다(이태준(임형택해제), 1988: 26)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言文一致觀은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면 굳이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에 발표된 「국어에 대하여」<sup>8)</sup>에도 지속되는바, 한글의 우수한 표현능력을 깨달음으로써 우

7) 이병기는 회원이기도 했으니 창간호부터 시조를 발표하는 등 논문과 작품으로 다수 기고한다. 가람을 제외하고 이태준의 「무식」(4호)은 조선어학회 회원이 아닌 문학자 중 최초였고, 이광수가 「문학과 문사와 문장(1-3)」(24-26호), 홍효민이 「조선 어문 운동과 조선 문학」(42호)·「언어·문화·인생」(73호), 임화가 「문학으로서의 조선어」(65호), 김기림이 「언어의 복잡성」(74호), 윤곤강이 「시와 언어」(69호), 조동탁이 「어원 소고」(73호), 한후구가 「서양어 발음에 대하여」(39호) 등을 기고하고 있다.

8) 이태준, 「국어에 대하여」, 『대조』, 1946.7. 이 글은 좌익 문학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이 주최한 제1회 조선문학자대회(46.2)에서 국어정책에 대한 보고서로 제출된 것이다.

리말을 사랑하고 아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언어관이 조선어학회와의 연대를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태준의 참여는 명목상이었는가 아니면 실제적이었는가? 이것은 이태준의 『문장강화』와 『중등국어교본』을 비교하면 단번에 드러난다. 안재홍의 「독서개진론」이나 조선일보 사설인 「일초 일목에의 사랑」(37. 4. 30), 변영로의 수필인 「施善에 대하여」나 이병기의 「建蘭」 등 다수의 텍스트들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재홍이나 이병기 등의 글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사상이 문필가들의 글이므로 굳이 이태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특정 일자 특정 신문의 사설이 중복된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이태준의 손길이 『중등국어교본』 곳곳에 배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하나만으로 조선어학회와 좌익계와의 연계가 매우 긴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태준은 본래 좌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좌익에 대한 조선어학회의 긴밀한 관계는 다음 사건, 즉 사전편찬 작업을 살펴볼 때 좀더 확연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시에 좌우합작이 위기에 봉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독정부 수립 직전인 '48년 4월 6일 오후 3시 반부터'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는 매우 상징적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 말 큰 사전』과 『표준 조선 말 사전』 간행 기념 축하회였다. '조선어학회 사건'을 상기한다면 이 행사는 단순한 축하회일 수 없었다.

이 축하회의 전모<sup>9)</sup>를 조선어학회 기관지인 『한글』 제104호(48. 6)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당일 행사 상황을 조목조목 기록한 유열의 「사전 간행 축하회」는, 조선어학회가 '온 나라 온 백성 온 언론 온 문화 기관'이 이 행사를 마련하고 축하해주기를 갈망했음을 은연중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행사의 주최자는 '조선문학가동맹'이었다. 더욱이 이날의 행사를 위해 청첩(『한글』 제104호: 29-30)을 돌린 기관은 조선어학회 자신도 아니고, 문교부도 아닌 '조선문학가동맹'이었다. 이날의 행사를

9) 이 축하회의 전모는 『한글』 제104호(48.6), pp.29-56 참고.

돌잔치로 비유컨대, 그 청첩을 조선문학가동맹이 돌렸다면 그들 간의 관계는 어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이 청첩장에는 '주최자 조선문학가동맹 대표 이병기 올림'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병기는 조선어학회 회원이기도 하였으나 실제 조선문학가동맹의 대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저 이병기가 명의만 빌렸다고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은 이날 참석한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조선 말의 守護者 조선어 학회에 榮光을 드리자”라고 ‘가로 써서’ 붙여진 현수막, “조선 글은 人民의 글” “조선 말은 人民의 말”이라는, 무대 좌우에 붙여진 표어가 한껏 분위기를 돋운 채 시작된 이날의 행사의 사회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정지용’이었으며, 이날의 기념사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위원장’이요 또한 민주독립당의 당수이신 벽초 홍명희의 것이었다. 祝歌의 몫도 ‘음악가 동맹의 박은용’이었고 이어지는 모든 祝詩, 祝辭 등도 조선문학가동맹에 속했던 이병기·박태원·안희남의 것이었다. 『표준 조선말 사전』을 발간한 雅文閣이나 『조선 말 큰 사전』을 발간한 乙酉文化社에 대한 致謝도 조선문학가동맹 몫이었으며, 교육계 역시 좌익 교원단체였던 조선교육자협회만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廉想涉이었으니, 그가 하였다는 개회사를 유열은 “이런 민족적인 기념식전을 문학가동맹만이 주최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바로잡히지 못한, 이 땅의 설움과, 자칭 문화인들의 무자각이 원한 겹다.”로 요약하고 있다. 염상섭은 일제 시기부터 중도의 길을 걸었던 존재<sup>10)</sup>였다. 그러한 중도파 문학인을 통해 조선어학회가 토로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시대의 무자각’이었다. 그러한 시대의 무자각을 지닌 반역사적 존재들은, 괴이하게도 우익 문화인들임을 이 행사는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어학회는 상대적으로 선명한 좌익인 조선문학가동맹이 주최한 돌잔치를 마음 편하게 받아들였던 것일까? 그 ‘마음 편함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즉 일시적 연대일 뿐인가 아니면 누적된 ‘강한 연대감’인가? 이 점은 해방정국하 국어교육계의 구도 및 제

10) 해방정국하 중간파 문학인의 면모에 대해서는 권영민(1988)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도로서의 국어교육의 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날의 행사는 조선문학가동맹이 진작 주최할 뜻을 조선어학회에 표하였는데, 조선어학회는 겸허한 마음과 아울러 '미묘한 국내 정세'를 감안하여 미루어 두었던 일이었다. 그러하다가 조선어학회는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것은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을 때 가장 먼저 호응한 단체가 조선문학가동맹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즈음에 가장 많이 민족을 팔고, 가장 쉽게 역사를 파는, 문화인이라 자처하고 지도자라 발 돌리는 사이비 애국자들의 더러운 태도에 의분"을 느껴 조선문학가동맹과 뜻을 같이 갖게 되었다고 유열은 토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조선어학회는 변화해가는 정국의 상황이나 문화적 지형이 자신들의 뜻과 어긋남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세의 급변 속에서도 조선어학회가 조선문학가동맹과 뜻을 같이 하게 된 요인은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그 점은 조선어학회의 회원으로 일찍이 좌익계의 李萬珪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에서 연원한다. 이만규는 1925년 조선청년총동맹간부로서 공산주의운동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그러한 그를 조선어학회는 창립 초기인 1932년부터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제4대 간사장(대표)의 중책을 맡기기까지 했다.<sup>11)</sup> 해방 후에도 이만규와 조선어학회의 관계는 매우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한글』을 복간하면서 권말에 수록한 '한글신문'에 이만규의 신변 변동에 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조선어학회는 해방직후 재단법인화하려 했는데 그 때 이만규는 幹事의 한 사람(『한글』 복간호 11권 1호, 46.4.1: 67)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국어교사 양성을 위한 한글 강습회 제2차(45. 10.24-11.13)에서는 '표준

11) 『한글』 창간호(32.5.1) 회원 소식란에는 이만규가 경성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무주임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가 『한글』 자에 기고한 글은 '우리 글씨는 한 굵으로 맞추자', (1호), 「과학술어와 우리말」(김두봉 쓰고 이만규 요약, 4호), 「한글 강습회를 열면서」(15호), 「한글 창제」(29호), 「유회 선생 약전」(44호) 등인데, 본래 의학을 전공했고 공산주의에 관여했던 인물이란 점을 고려할 때 적다 할 수 없는 양이다.

어' 과목을 담당했으며 그의 글인 「예의」가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만규가 培花高女校長으로 취임(11권 1호)했다거나 사임(11권 3호, 46.7.15: 72)했다는 등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런 함축도 없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묘한 국내 정세'를 이유로 조선문학가동맹의 善意를 한 차례 사양했던 조선어학회가, 해방 직후 초대 간사장이었던 李克魯가 '미·소 공위 대책 연합회 의장단 의장에 피선, 좌우 합작 위원에 추천'되었다는 소식(12권 3호, 47.7.15: 72)과 아울러 이만규가 '근로인민당 조직부장에 피선'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은 많은 함축을 지닌다. 즉, 조선어학회는 문화계(좁혀 말하면, 국어교육계)의 좌우합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단체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좌우합작이 국어교육계의 개혁에서 미군정치의 간섭 없이 추진될 수 있었는지가 문제로 떠오른다. 『한글』 복간호는 다수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학무국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崔鉉培는 학무국 편수과장으로 張志暎과 이병기는 편수관으로 그리고 李浩盛은 학무국 초등교육과장으로 취임했으며, 조선교육심의회 제4분과(초등교육) 위원으로 이극로와 이호성이, 제9분과(교과서) 위원으로 최현배와 장지영이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서, 조선교육심의회 제9분과는 각종 국정교과서의 심의를 담당했는데 거기에 최현배와 장지영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어교과서의 탄생 과정 - 집필뿐만 아니라 소위 검열까지 포함하여 - 이 거의 전적으로 조선어학회에 좌우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더욱이, 미군정치의 초기 교육정책은 적극적 개입이라기보다는 관망적(이광호, 1985: 495-7)이었다는 점에서도 이것이 사실에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948년 단독정부 수립기까지였다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계의 개혁이 조선어학회에 좌우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지닌 단체가 1948년 4월 26일 창립되었기 때문인데, 바로 趙潤濟 중심의 國語教育研究會가 그것이다. 國語教育研究會는 창립총회와 함께 당일 제 1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국어교육계 최초의 전문학술지인 『國語教育』 창간호<sup>12)</sup>를 발간함으로써, 국어교육 개혁의 새로운 이론적 거점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로써 국어교육계의 개

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환이 교육계·문학계와의 合縱連衡을 통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萌芽는 해방 직후 조운제가 발간한 『國語教育의 當面한 問題』<sup>13)</sup>로부터 발견된다. 여기서 그는 '國語는 곧 우리의 生命이다.'라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결코 논쟁을 야기할 수 없는 민족주의적 국어교육관을 주장함으로써 국어교육이 언어사용 기능(綴字法 익히기 등) 교육에 멈추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 책의 第三編 國字問題에서 漢字問題·綴字法問題·橫書問題와 관련하여 조선어학회를 비판하면서 발생하였다. 조운제는 한자 폐지를 급격히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전적 문화 유산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며 철자법이나 가로쓰기 문제도 역시 조선어학회의 의견만을 인정하는 것은 편벽된 판단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조운제는 막연한 常用漢字(1,000자 정도) 制定論이나 신중한 토론에 의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주장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조선어학회는 비판의 글을 제기하는데 李正學의 「國語教育의 當面問題 - 趙潤濟 教授의 盲論을 一蹴함」<sup>14)</sup>을 시작으로 붓물처럼 터져 나온다.

문제는 조운제의 비판이 국어교육계의 감정적 대립을 촉발시키는 부정적 방식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한자 폐지 문제는 혁명적인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過渡朝鮮文教部主幸에 朝鮮教育審議會가 열리어 靑天霹靂으로 漢字廢止問題가 上程되자 그냥 議決되어 오늘의 國語教科書는 그 趣旨에 編纂이 되고, 事實上 國民學校에는 漢字가 廢止되고 말았다.”면서 이 때 참을 수 없는 鬱憤을 느꼈다고 주장한다.(조운제, 1947:

12) 홍용선(1963: 12)에 의하면, 『國語教育』은 제2호의 조판까지 하여 놓고 재정난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한다.

13) 여기서 조운제(1947: 1-7)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방식'과 '進歩民主主義(공산주의) 교육방식' 모두를 부정하면서 독자적인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국어교육을 개혁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14) 『한글』 제12권 4호, 47.10, pp.24-30. 당시 한자폐지와 관련된 전반적 논의는 이 응호(1974) 참조.

101) 분과위원회에서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이었으며, 이에 표결에는 기권하고 조선교육심의회 총회에서 결정짓자고 강력히 주장했다가 결국 자신이 꺾성한 총회에서 의결되었음에 憤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文敎部가 어떤 私設團體의 所屬機關이 아닌 以上”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문교부에 그냥 미끄러져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한다.(조운제, 1947: 118) 이정학이 강력하게 반발한 부분도 바로 이러한 감정적 표현들 때문이었다.

조운제는, 비유컨대 국어교육계의 野黨을 결성하고자 한바, 그것이 국어교육연구회였다. 단독정부 수립 후 조운제의 추천으로 국어과 편수관이 된 홍용선에 의하면, 국어교육연구회에 참여한 인물들이 대체로 조운제의 경성사범학교 제자들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암시해준다.<sup>15)</sup> (홍용선, 1992.12: 157-164) 그런데 새로운 국어교육 연구단체의 출범은 국어교육계 내부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교육계와 문학계로 확대 연계되었다. 조선어학회 사전편찬 축하회가 좌익 중심이었던 것처럼 『國語教育』 창간에 축하를 보낸 이들은 문교부장관 안호상, 국회의장 신익희, 그리고 우익문화단체인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박종화였으며, 중도파라면 이병기가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개인 신분으로 명함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정치적 좌우대립이 드디어 국어교육계에까지 심화되는 첫 국면이었다.<sup>16)</sup>

이처럼 국어교육계 외부에서의 대결 구도가 1948년부터 점차 국어교육계로 투입하면서 또는 어문정책으로 촉발된 국어교육계의 대립이 외부와 접맥되면서 1949년에는 그 대결 의식이 침체화되었다. 조선어학회 맹원 중 한 사람인 이호성마저 ‘저 左翼分子’라는 발화를 하기 시작했다

15) 『국어교육』 창간호의 편집을 맡은 천성환, 투고한 필자들인 홍용선, 이희복, 이훈중, 신동훈 등은 모두 일제 때 조운제가 잠시 근무했던 경성사범학교의 제자들이었다. 홍용선은 조운제의 추천으로 단독정부 수립 후 국어과 편수관에 취임하게 됨으로써 조선어학회(이호성·박창해 등)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

16) 이러한 대립은 우익문학계의 조연현이 조선어학회를 공격하고 좌익문학계의 윤곤강이 조운제를 비판하면서 좌우의 대결 양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윤곤강, 1948.2; 조연현, 1949.7 참조)

(이호성, 1949.2: 37-38)<sup>17)</sup> 는 사실이 이를 상징한다. 이제 조선어학회 내부에서도 점차 좌우합작에 대한 노선 분기가 시작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국어교육계의 좌우 대립 현상이 결코 내부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람일기』는 이 점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병기의 기록<sup>18)</sup>에 의하면, 그가 미군정청 편수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45년 10월 30일부터 47년 9월 5일까지이다. 이 기간의 일기에서 그는 교과서 편찬 심사를 담당했던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기할 만한 방식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모두 한자폐지에 관한 논쟁이었다. 다름아닌, 한자폐지 문제·맞춤법 문제 등에 대해서만큼은, 논란이 분분했고 지루했다는 어감을 주기에 충분하도록 '(하루) 종일' '5시간' '4시간' '미결' 등등의 어휘를 내세우면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교과서 문제로 좌우익계 문학인들을 두루 만나서 자료 협조 및 의견을 구하였는데, 정작 우익계 문학조직인 문필가협회의 이현구·이하운(46.4.15) 등은 특별히 시비를 논하지 않았다<sup>19)</sup>고 기록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9년에 와서야 가람 자신의 조선문학가동맹과의 친분 문제(7월 7일), 중등교과서에 수록된 좌익 문학가의

17) 이호성은 『한글』 복간호에 기고한 「여러 문제와 교육자의 가질 태도」에서는 친일경력자까지 포용하려는 입장을 보였으나 오히려 이 시기에 오면 이러한 포용 태도는 자취를 감춘다.

18) 이병기(1976) 중 1945-1950년까지의 일기 참고.

19) 실제로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좌익계 작가와 텍스트 전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상당수에 이른다.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좌익계 작가와 텍스트	
상권	첫여름(박태원, 수필), 나막신(이병철, 시), 난초(정지용, 시), 윈터(이기영, 소설), 해촌일지(이태준, 일기), 경이(驚異, 조명희, 시), 가을(이병기, 현대시조), 팔월 15일(이원조, 논설), 향수(김기림, 시), 온돌과 백의(홍명희, 설명), 우리 오빠와 화로(입화, 시)
하권	그대들 돌아오시니(정지용, 시), 석탑의 노래(오정환, 시)
중권	예의(이만규, 논설), 편지(이태준의 『서간문강화』에서), 물(이태준, 수필), 부여를 찾는 길에(이병기, 기행), 아차산(이병기), 녹음(綠陰) 애송시(정지용, 김상문), 회향(이원조, 수필),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홍명희, 추도문), 아름다운 풍경(박태원, 수필), 건란(建蘭, 이병기, 수필)

작품 문제(9월 18일)가 각각 수도권경찰청과 문교부 공보처로부터 지적받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길게 잡아 45년부터 49년 전반기까지,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 내부에서는 좌익 문학가의 작품 수록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어교육계 내부의 대립은 어문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좌우대결 구도와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조선어학회의 독자적인 좌우합작 노선은 단절되고 정치적 대립구조에 지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좌절 이전까지 조선어학회가 좌우합작 노선을 견지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중등국어교본』에 실린 안재홍의 「독서개진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특히 『중등국어교본』에 실린 유일한 정치적 논설문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古人 盲目 追從 眞譯 降參 今人  
 고인들은 흔히 맹목으로 추종하고 직역으로 함참하는 자 많더니, 금인  
 海外 左翼 先驅者 言論  
 들은 혹 해외의 좌익이란 선구자의 언론에 맹목으로 추종하는 자 많아, 그  
 眞境 秘義  
 경우와 역사와 현실의 정세가 서로 같고도, 다른 진경 비의를 미처 모르는 자  
 程朱  
 적지 않은 터이다. 고인의 그러함이 반드시 정주의 죄 아님과 마찬가지로  
 批判的  
 금인의 그러함도 역시 해외의 좌익 선구자의 허물이 아닐 것이다. 무릇 비판적  
 思想的 植民地 一世 僑寇  
 이 아닌 곳에 정주가 조선을 그 사상적 식민지로 잡아, 일세의 유관한 자로  
 全球 崇外 愚 英蓋  
 전역을 들어 송외의 제물로 내주려고 하였으니, 그 환의 막심한 자이었었다.  
 現代 思索 意外 過談 指導者  
 비판적이 아닌 곳에 현대의 독서 사색하는 자로 의외의 과오를 지도자로서  
 犯 廣殘  
 범할 수 있는 것이니, 독서와 그에서 나오는 실천이 위낙 쉬운 바 아니다. 나  
 處地  
 의 처지를 밝게 알고, 거기서 남의 지난 지취를 찾을 때에 비로소 남이 갖지  
 進路  
 못하는 진정한 진로가 터지는 것이다.

— 『중등국어교본』(하), p.37.

얼핏 보면 이 글은 좌익에 대한 우익의 비판으로 읽힌다. 하지만 ‘좌익 선구자’라는 표현은 화자의 태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런

까닭에 안재홍의 전반적인 사상 체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재홍은 新民族主義를 주창한 사상가·정치가로서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국민당 당수, 좌우합작위원회 우익진영 대표위원, 미군정기 초대 민정장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또한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투옥되기도 했던 그는 조선교육심의회 제1분과(교육이념)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일제 36년간 총 7년 3개월의 囹圄 생활을 한, 친일 경력이 부재한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인물이란 점에서 極右界의 嫉視를 받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김구가 귀국하기 전까지 중도 좌익계를 대표하는 정치가가 여운형이라면 중도 우익계를 대표하는 정치가는 바로 안재홍이었다.(정운재, 1999 참조)<sup>20)</sup>

해외 혁명세력이 모두 귀국한 이후(이승만 계는 45년 10월 12일 귀국, 김구 계는 11월 23~12월 2일에 귀국)에도 그는 여운형·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구의 임정 중심의 민족주의가 제1선, 좌익은 제2선을 유지한 과도정부 결성(민·공협동론)'을 모토로 양측을 설득하기 위해 진력했다. 하지만, 테러활동 및 극단주의가 팽배하던 당시 상황에서 극좌와 극우(친일파 등이 결집한 한민당과 한민당이 적극적으로 후광을 이용하고자 한 이승만 계열) 모두로부터 비난받기에 이른다. 그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적 민주주의와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가 삼팔선을 사이로 험악한 대립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하에, 좌우합작의 근거로 공산주의적 계급투쟁보다는 민족의 대외적 독립국가 형성을 위한 민족투쟁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정장관에 취임(47.2)한 후에는 '純正右翼의 대결집'을 주창(안재홍, 1947.10/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83: 209)하면서, 진정한 우익은 봉건적·대지주적·자본가적 특권계급

20) 안재홍은 우리의 숫자말 '하나'에서 '열'까지를 정치철학적으로 해석하여 독자적인 조선정치철학을 제창했다. '다사리'는 '다섯'으로부터 도출한 '다스림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인바, 그는 다사리이념이 서구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용적으로 통합한 이념으로서, 민족 고유의 민주적 정치철학이라 규정했다. 이러한 정치철학을 해방 직후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민우사, 1945.12)와 『한민족의 기본진로』(조양사, 1948)에 압축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행동의 이론으로 삼았다.

지배를 배제한 眞正民主主義 路線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좌우합작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중간파’라는 ‘모멸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 비판하면서 새로이 純正右翼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순정우익만이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 자주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수파·친일파가 결집한 한민당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게 된다. 이로써 그는 민정장관직을 사임(48.6)할 수밖에 없었고, 단독 정부 수립 후에는 정권 핵심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6·25 전쟁중 납북됨으로써 남한 내에서의 활동이 중단되기에 이른다.<sup>21)</sup>

이러한 사상을 지닌 그의 글이 『중등국어교본』의 유일한 정치적 논설문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조선어학회의 사상적 기반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압시해준다. 조선어학회는 자신들의 회원이기도 했던 안재홍의 좌우합작 노선, 즉 극좌극우를 모두 배척하는 순정우익의 관점에서 국어교육개혁을 수행하고자 했던바, ‘비판적 독서’는 그러한 노선의 강화를 위해서 선택된 국어교육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재홍이 정치계에서 좌초하였듯이 조선어학회 역시 자신들의 노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Ⅲ. 미군정기 국어교육의 장르 선택논리와 문학교육관 : 鎮魂의 문화적 논리

이제는 조선어학회의 비정치적 정치성, 즉 좌우합작 노선이 문학교육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시와 수필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넓게 보아 신민족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던 安浩相과 안재홍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 처지가 크게 달라진다. 두 사람의 사상을 비교 검토하는 일은 본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세히 언급할 수 없으나, 안호상의 신민족주의인 一民主義가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이용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안재홍은 끝까지 비판적 우익으로 남았다고 규정할 수 있다.

『중등국어교본』 수록 현대시(총 19편)			
상권	七. 비스소리(주요한) 一四. 나막신(이병철) 一六. 비 갠 여름 아침(김광섭) · 복중(한용운) 一九. 파초(김동명) · 난초(정지용) 三〇.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 경이(조명희) 三六. 바다(김동명) 四七. 향수(김기림) · 벗들이여(변영로) 五〇. 우리 오빠와 화료(임화)	중권	二三. 마음(김광섭) 三〇. 산촌 모경(백기만) 三二. 선구자(양주동)
			하권

『중등국어교본』 수록 현대수필(20편)			
상권	四. 어린이예찬(방정환) 六. 봄새비 오는 날 一〇. 화단을 바라보면서 一三. 첫여름(박태원) 二一. 향토기(이선희) 二二. 우리집 정원(노자영) 三一. 공중의 경치 三四. 벌레소리 三八. 시선(施善)에 대하여(변영로) 三九. 팔월 십오일(이원조)	중권	一. 청춘예찬(민태원) 五. 청추수제(淸秋數題, 이희승) 一五. 사온일(四溫日, 이효석) 二〇. 물(이태준) 二七. 회향(懷鄕, 이원조) 二八.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홍명희) 三一. 그 은행나무(박화성) 三三. 아름다운 풍경(박태원) 三六. 건담(建蘭, 이병기)
			하권

주목할 점은 『중등국어교본』에는 소설이 4편<sup>22)</sup>에 불과한 반면 시조와 현대시, 현대수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선택 범위는 좌우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좌우 포괄성과 서정 장르 우선성이 『중등국어교본』에 나타나는 문학교육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 것일까?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정 장르 선택의 배후 논리를 해명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2) 상권에 수록된 '12. 금강(채만식의 『탁류』 일부), 23. 윈터(이기영, 『고향』의 일부), 35. 소(박찬모 『소 이야기』의 일부)', 하권에 수록된 '17. 온실(앙드레 지드의 소설 『밀 한 알』의 일부)' 등이 전부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 박찬모의 『소 이야기』는 동화에 가깝고, 『온실』은 외국소설이란 점에서, 한국소설은 단 2편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한국' 근현대시(수필)가 수록된 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다. 분량도 3쪽 전후일 뿐만 아니라, 마치 서경수필의 일부인양 소설의 배경공간을 묘사하는 작품 첫부분이 수록되어 있어서, 소설이란 인상을 주기 어렵게 편찬되어 있다. 단, 중권에 수록된 '13. 조선의 영웅(심훈의 글)'이 과연 소설인지 아닌지 필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소설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서정 장르 선택의 논리는 무엇보다도 문학적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김윤식이 지적하였듯이, 해방 공간의 감격적 상황에 적합한 문학 장르는 바로 시(김윤식, 1988: 216)였다. 감격의 황홀경은 노래로써 표현될 수밖에 없었기에 각종 해방기념 행사에서 선호된 장르는 소설보다 시였다. ‘해방기념소설집’은 출간되지 않았지만 『해방기념시집』 등의 기념시집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다수 출간되었음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당시에 문단에서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일제 시대의 행적에 대한 ‘자기비판’에 적합한 것 역시 시였으며 좀더 長文化된 형태가 바로 수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배경 때문에 『중등국어교본』 역시 소설보다는 시, 그리고 자아 비판이 가능한 수필 장르를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학적 논리이지 국어교육적 논리라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어교육계의 고유한 논리가 무엇이었는가 규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러한 논리는 특히 수록시와 수필 작품의 내재적 질서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鎮魂歌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으로 부각된다. 진혼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는 특히 두드러져 「초혼」·「그대들 돌아오시니」·「벗들이여」·「선구자」와 같은 명백한 진혼가류와 넓게는 「나막신」<sup>23)</sup>·「석탑의 노래」 그리고 「우리 오빠와 화로」가 포함되며, 수필로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팔월 십오일」 등이 이에 속한다. 총 19편의 시 중 40%에 육박하는 7편이 이러한 진혼가류인 까닭은 무엇일까?

해방은 감격만을 노래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해방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이다. 중권에 수록된 홍명희의 「죽은 사람을 생

23) 이 작품은 다른 잡지에 기발표된 것이 아니라 『중등국어교본』에 실기 위해 처음으로 쓰였는데,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병철의 해방 직후 행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향인 안동 근역에 머물던 그는 이원조의 조언에 따라 서울행을 택하고 문학가동맹에 가입했다. 해방전 그를 추천하여 문단에 데뷔케 했던 이원조는 이병철에 있어서 ‘결정적 조연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문학가동맹이란 카프의 후예였던바, 「나막신」에 나오는 서정적 자아는 ‘카프의 후예’로서 내면화하고 있던 정신적 지향을 민요적 전통적 표현에 담아 형상화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진혼가의 기본적 지향인 ‘先烈的 정신을 잇고자 하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하며」가 보여주고 있듯이, 국어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포악한 적은 우리 국토를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나중엔 우리의 착한 풍속과 아름다운 언어까지 빼앗아 갔다. 그러나 용감한 우리 선열들은 주검으로 자취를 이어 마침내 위대한 이날을 창조하였으니 새 조선은 실로 피로 다진 터전 위에 일어서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원조의 수필 「팔월 십요일」(『교본』 상권: 107)이 수록된 까닭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진혼가류의 작품들을 통해 조선어학회로 대표되는 국어교육계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 조선어학회는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생각했다고 판단된다. 첫째, 살아남은 자의 도리가 무엇인가? 살아남은 자는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둘째,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당위는 무엇인가? 이 두 과제가 '중대한 과제'였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鎭魂이 지니는 문화적 논리와 해방 직후의 언어교육의 냉혹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진혼의 문화적 논리에 대한 해명은 김소월의 「초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김윤식의 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죽은 혼을 달래는 장치를 잃은 사회에서는 문화가 있을 수 없다. 달랠을 받지 못한 혼은 怨魂으로 되어 표랑한다. 그 원혼의 세계는 공포의 세계이다. 해꽃이(해코지)를 하는 것이 공포이고, 그것이 곧 문화의 반대편에 서는 혼의 物神性이다. 그럴 경우 인간과 혼은 대립되고 적대 관계에 놓여, 인식과 감정은 마비 상태를 빚는다.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길은 鎭魂굿, 그것뿐이다. 혼을 달래는 곳을 위해 지불된 供物 중의 하나가 詩人일 때 그 시인이 소속된 집단은 최소한의 파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한국의 20년대 유랑하는 혼을 달랜 자는 누구인가.

[김윤식, (1977), 신동욱 편, (1980: 141-2)]

마지막 문장을 해방 정국에 맞게 변형하자면, 일제에 의해 죽어간 수많은 혼을 달랠 자 누구인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진혼의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진혼의 장치가 없는 사회는 문

화 부재의 상태라 폄하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주검 위에 선 사회 속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로서는 방외자적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진혼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인 동시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혼 사상이 동양문화 전통에 뿌리 깊은 것이라면 해방 직후의 국어교육이 이 점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 진혼국의 供物로 선택된 것이 언어적 주술성을 지닌 서정 장르라 하겠다. 한마디로, 원혼과 인간이 대립적 적대 관계가 성립하여 자칫 공포의 세계가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어교육은 서정장르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백히 진혼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초혼」, 「그대들 돌아오시니」, 「선구자」 등은 진혼의 대상이 매우 막연하고 한정적이란 점에서 그 한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초혼」의 대상은 그 죽음의 계기가 과연 역사적 요인인지 불분명하다. 한편, 「그대들 돌아오시니」 등은 특정한 존재들 소위 先驅者나 해외투쟁 세력으로 표상되는 소수자들을 청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적이다. 이 막연하고 한정적인 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혼가들은 은연중 死者의 세계에 또 다른 어둠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름없이 죽어간 사람들, 국내에서 투쟁하다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것은 해방에 대한 열망이 과연 '선구자들만의 욕망'이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다.

국어교육의 영역에 한정하자면 이 해방에의 욕망 문제는 '국어에 대한 사랑의 문제', 즉 '국어교육의 당위성 문제'로 치환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조선어학회라는 특정한 소수 집단만이 국어를 사랑했던 존재였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국어를 학교교육의 정규과목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이 '자명한 당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 체험을 해방 정국이 조선어학회에 던져주고 있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앞서 살폈듯이 조선말큰사전 간행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졌음이 그 하나라면, 조선어학회가 해방 직후 한글교육을 위해 맹렬히 전개한 '한글 강습회'에 대한 관심이 삼시간에 줄어드는 현상이 또 다른 충격이었다. 아 이러니하게도 한글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었기에 또한 쉽게 '학습의

대상'에서 멀어졌던바, 실제로 漢文이나 英語에 대한 학습열이 팽배해져 갔던 반면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증대하였던 것이다.(이병기, 1948.9 ; 申珪澈, 1947.7) 따라서 진혼의 대상이 선구자에게만 한정되는 사태는 국어교육의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어교육의 필연적 토대 찾기와 연관되어 해방 공간에서의 국어교육계에게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만약, 민족의 일부는 일제를 반겼거나 저항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된다면, 그것은 동시에 국어교육의 필연성이 없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질 만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은 해방이 왔고 배우고 싶지 않은 국어라면 굳이 국어교육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국어교육계는 모든 민족 구성원이 항일 의식을 지녔었음을 증거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인다. 너무나 자명해 보이기도 하지만 염상섭의 『삼대』나 채만식의 『태평천하』 등이 묘파한 일제 시대 우리 민족의 日常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자명한 것도 아니다. 이 작품들에 의해 묘사된 일상의 세계에는 가치중립적 존재, 반민족적 존재들도 엄연히 실재했던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국어교육계가 취할 방법은 諷刺이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어교육계는 풍자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중등국어교본』에 풍자적 문학작품이 한 편도 선정되지 않았음<sup>24)</sup>에서 알 수 있다. 오히려 비장과 승고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모두가 저항하다가 비장하게 피흘렸음을 증언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민족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농민들은 과연 어떠한가? 그들이 과연 해방을 원하지 않았다면 이 해방은 기쁨의 순간일 수 있겠는가? 국어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증명의

24) 『중등국어교본』에는 풍자문학 작품도 자기비판의 문학 작품도 없다. 이후 국어교과서에 윤동주의 작품이 등장하여 '부끄러움'으로서의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풍자와는 다른 차원이었다. 아울러 채만식의 『치숙』과 같은 풍자문학이 대체로 뒤늦게 등장했음은 많은 함축을 지닌 국어교육적 사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또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과제는 없었고,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는 이 중대한 증명 과제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였다고 볼 수 있다.

오빠,  
 저만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이만이 굳센 형님을 보낸것이겠  
 습니까?  
 싫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많은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동생 저이들의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오빠, 오늘밤을 새워 이만장을 붙이면, 사흘뒤엔 새 솜옷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누이동생과 아우는 오는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영남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 『교본』 상권, p.153.

이 작품은 두 가지를 증언해 주고 있다. 모두(대다수 민중들)가 ‘오빠(가족)를 잃었다’는 점, 그 동기가 일제에 의한 탄압에서였다는 점이 첫째이고, 그렇게 고통 받으면서도 모두가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내’었다는 사실, 즉 해방의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싸웠다는 사실이 둘째이다. 이러한 ‘정서적 진실’, 즉 해방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지니고 살았다는 깊은 내면의 진실이 전제되지 않는 한, 『중등국어교본』은 물론 국어교육계 전반에는 沙上樓閣의 공간, 무의미와 가치중립의 세계만이 열릴 뿐이다. 정치가들의 나라만들기를 위한 각종의 투쟁들은 그저 바뀐 세상에서의 정권 투쟁에 불과하며, 그들이 말하는 애국은 또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 된다. 더불어 국어교육의 필연성도 사라지게 됨은 자명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시로서 「우리 오빠와 화로」는 대단히 효과적이었던 점, 그렇기에 좌익 작가의 작품이라는 꺾끄러운 면은 고려될 사항이 아니었다. 「그대들 돌아오시니」의 화자는 도무지 그 정체성이 ‘민족’이라는 추상체 외에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선구자」나 「벗들이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흔히 대표적인 저항시로 여겨지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

도 붉은 오는가」나 이육사·윤동주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가정해도, 「우리 오빠와 화로」처럼 화자의 지시대상의 구체적 포괄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시들의 화자들은 관념적 차원에서 '민족의식에 투철한 한국인'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시인이 투사한 '이상적 주체의 이미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 오빠와 화로」는 상징이나 비유적 어법이 아닌 직설적 어법으로 민족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 자체가 당시 한국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노동자·농민을 표상하고 있다.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몇몇 한국인만이 원했던 해방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해방을 위해 한국어를 지키기 위한 희생은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음을 각오하며 한글을 지켰고, 감격의 해방을 맞이하여 이제 본격적인 국어교육을 위해 『중등국어교본』을 편찬했던 조선어학회는 이러한 민족적 기반을 반드시 증명하고 확대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오빠와 화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선택이 조선어학회의 정치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 純正右翼의 민족주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회승이 강조했듯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서는 무미건조한 논설문으로는 부족하였고 문학 작품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했다(이회승, 1949.3). 그런 까닭에 다수의 시 텍스트를 供物로서 활용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순정우익의 민족주의를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오빠와 화로」가 선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저항 행위의 전민족적 근거 및 해방에 대한 신념의 정서적 진실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중등국어교본』에서 드러나는 조선어학회의 국어교육관은 좌우합작을 지향한 純正右翼의 民族主義였으며, 그것은 국어교육계의 독자적 정치의식으로서 '적극적으로 선택되고 실천된' 노선이었다. 좌익 작가의 텍스트를 수록함도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능동적 선택'인바,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하에서의 '혼란'이거나 '절묘한 균형감각'의 소산<sup>25)</sup>만은

25) 좌익계 작품이 수록된 원인을 최현섭(1989: 55)은 '당시의 混亂相'으로 보았고, 김

아니었다.

#### IV.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독자적 노선의 의미

지금까지 논한 바처럼, 미군정기 국어교육계는 다른 사회적 영역과 달리 좌우대립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어교육계의 주도세력인 조선어학회가 좌우합작을 공식적 노선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좌익문학가나 교육가까지 모두 포괄하여 국어교육을 전개하고자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구성원 속에 이미 좌익계 인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해방직후 안재홍의 좌우합작 노선을 정치적 입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어학회 일부 회원의 급진적인 어문정책에 대한 반발이 국어교육계 내부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확장되면서, 국어교육계는 좌우대립의 양상을 띠게 되었고 급기야 좌우합작이 불가능해졌다. 달리 말해 좌우합작을 추진하던 조선어학회가 국어교육계의 단일한 단체로서의 위상을 잃으면서 이러한 좌우합작은 현실적인 지원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조선말큰사전 간행 기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까지 좌익작가의 작품 수록은 국어교육계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좌우합작은 국어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방법으로써 적극적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어교육의 원형적 노선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해방이후 국어교육사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국어교육계는 좌우대립이 국어교육에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진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독정부 수립 이후의 국어교육은 국어교육의 이상적 형태라 볼 수 없다. 이것은 국어교육적 관점과 정치적 이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불행히도 戰後의 국어교육은 국어교육적 관점

---

윤식(1992)과 정재찬(1996)은 편수관 이병기의 '절묘한 균형감각'으로 보았다.

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모든 사태를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은 심지어 미군정기에까지 逆投射되어, 마치 좌우대립이 당시의 국어교육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錯視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미시적으로 보면 문학계·교육계의 좌우대립을 그대로 국어교육계에 투사하는 것이며 거시적으로 보면 정치계의 좌우대립을 차별 없이 적용하는 誤認이다. 따라서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錯視와 誤認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본 논문은 2005. 10. 25. 투고되었으며, 2005. 11.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1. 20.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민족문화론연구』, 민음사, 1988.
- 김성학, 「해방직후 교원단체의 등장과정과 활동을 통해 본 식민지 교육경험의 지속과 변동」,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제2호, 2004.
- 김용일, 「미군정기 교육정책 지배세력 형성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3권4호, 1995.
- 김용일, 「미군정기 조선교육심의회에 관한 교육정치학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6집, 1994.
- 김윤식, 「문학교육과 이데올로기-국어교과서의 역사성 비판」, 이응백 외, 『광복후의 국어교육』, 한샘출판사, 1992.
- 김윤식, 「해방 공간의 시적 현실」,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1988, p.216.
- 김윤식, 「혼과 형식」, 『심상』, 1977.
-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 申圭澈, 「국어교육 유감」, 『한글』 제12권3호, 1947.7.
- 신동욱 편, 『김소월』, 문학과지성사, 1980, pp.141-2.
- 안재홍, 「순정우의 결집」, 『한성일보』, 1947.10(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민세 안재홍선집2』, 지식산업사, 1983, p.209).
- 윤곤강, 「나랏말의 새 일거리-문학자로서 본」, 『한글』 제13권1호, 1948.2.
-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 이병기, 「해방후 국어교육」, 『새교육』 제1권2호, 1948.9.
- 이병기, 『가람일기(II)』, 신구문화사, 1976.
- 이응호,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 성창사, 1974, p.207.
- 이태준(임형택 해제), 『문장강화』, 창작과비평사, 1988, p.26.
- 이태준, 「국어에 대하여」, 『대조』, 1946.7.
- 이호성, 「민주주의 민족교육에 입각한 학교관리법(상)」, 『새교육』 제2권1호, 1949.2, pp.37-38.
- 이희승, 「국어교육의 몇 가지 문제」, 『새교육』 제2권2호, 1949.3.
- 정운재, 『다사리국가론 - 민세 안재홍의 사상과 행동』, 백산서당, 1999.
- 정재찬, 「현대시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태범,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편찬」, 『한국편수사연구 I』,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2000-4), 2000, pp.59-62.
- 조연현, 「국어교육과 문학」, 『조선교육』 제2권7호, 1949.7.
- 조운제, 『國語教育의 當面한 問題』, 문화당, 1947.6.30, pp.1-17.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제2판), 삼지원, 2002, 제3부 제3장.
- 최현섭, 『소설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p.55.
- 홍웅선 외, 『국어교육』(현대교육실천총서1),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3, p.12.
- 홍웅선, 「도남 선생님과 나」, 『문학 한글』6호, 1992.12, pp.157-164.
- Kuhn, T.S.(조형 읍김), 『과학혁명의 구조』(개정판), 1970(1995).

<초록>

##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 연구

남민우

이 글은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성립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논하였다. 당시 국어교육계는 다른 사회적 영역과 달리 좌우대립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어교육계의 주도세력인 조선어학회가 좌우합작을 공식적 노선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어학회 일부 회원들이 전개한 급진적 어문정책을 놓고 국어교육계 내부에서 갈등이 증폭되면서 좌우합작 노선이 붕괴하게 되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조선말 큰사전 간행 기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까지 좌익작가의 작품 수록은 국어교육계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좌우합작은 국어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방법으로써 적극적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어교육의 원형적 노선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해방이후 국어교육사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국어교육계는 좌우대립이 국어교육에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진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독정부 수립 이후의 국어교육은 국어교육의 이상적 형태라 볼 수 없다. 불행히도 전후의 국어교육은 국어교육적 관점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모든 사태를 판단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심지어 미군정기에까지 역투사(逆投射)되어, 마치 좌우대립이 당시의 국어교육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착시(錯視)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착시와 오류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어】** 미군정기 국어교육계, 조선어학회, 좌우합작의 국어교육적 논리

<Abstract>

**The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Korean Education  
Community In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Nam, Min-woo

This thesis has verifi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orean Education Community in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And I also discuss the historical meaning of it. Unlike other social field, the conflict of ideology was relatively trivial in Korean Education Community of those days. That is because 조선어학회 propelled the collaboration of the two ideology as a official line. However, things were changed. Several members of the meeting had tried to practice radical language policy. That brought about troubles in Korean Education Community. Finally, the collaboration line came to collapse. The memorial day of publishing '조선말큰사전' clearly showed that. While the political outlook was just like that, the fact that leftist writers' was on the list of the textbook has not been issued. On the contrary, that situation was positively selected as a way of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Korean Education.

These facts are historically meaningful in that those could imply the typical line of the past Korean Education. Korean Education Community of those days concluded that the conflict of ideology would not advantageous to Korean Education. Considering all this, we could not regard the Korean Education of independent government as an ideal state. That is because the post-war Korean Education was mistaken everything for political ideology, lacking in independent educational perspective. That kind of thinking has also inscribed into the viewpoint of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This is so natural to us, so we have misconception about the historical judgement: the conflict of ideology was widespread in those days! So, if we are to appreciate the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Korean Education Community in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we should be careful not to commit this kind of error again.

**【Key words】** The Structure Korean Education Community in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조선어학회 the ideology of the Right-Left collaboration lin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